고려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

- 실전의서의 복원 Ⅱ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팀 안상우

Historical research on Korean medical book, 『Bi Ye Baek Yo Bang』

Ahn Sang-woo

Through the research on the 『Bi Ye Baek Yo Bang』, which is a part of 『Eui Bang Yoo Chui』, 『Bi Ye Baek Yo Bang』 is discovered to be a Korean medical book of the late Korean and early Chosun era, not Chinese as the established theory so far. By further studies following this kind of job, the spirit of our independ medicine should be brought back.

서 론

『비예백요방備豫百要方』은 국내는 물론 동양의학계에서 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처방서로 다만 『의방유취醫方類聚』에서만 보인다. 『의방유취 · 인용제서引用諸書』에서 고려 의서 『어의촬요御醫撮要』 다음으로 수록된 이 책은 여러 문에 걸쳐 많은 분량의 내용이 채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책에 대한 서지 정보나 출간에 관한 사실 등 주변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1] 고려, 조선은 물론 중국의 사서나 서지 목록에서 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 미지의 의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간 역대 학자들의 논의

1) 인용제서 역시 동의보감 · 역대의방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인용문헌의 나열로는 생각할 수 없다. 의방유취 인용제서 중 우리 의서가 분명한 것은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 서문이 전하는 『御醫撮要』 단1종 뿐 이었다. 동의보감 역대의방에 관한 논의는 신동원의 「동의보감 · 역대의방 과연 인용문헌인가」한국과학사학회지, 1997. 참조.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방대한 분량의 의방유취 안에 파묻혀 숨겨진 채로 기나긴 세월을 지내 왔을 뿐이다.

근세 『의방유취』를 탐색한 의사학자들에 의해 단지 당, 송 혹은 원, 명기의 중국 실전 의서로 취급되어 온 이 책은 오랜 세월 학계의 무관심과 세심한 고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 했다. 뿐 만 아니라 국내 의사학계에서는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이나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등 고려말에서 조선전기를 풍미한 향약 의서 들이 이 책을 모태로 하고 있고 중복된 부분이 많음을 감지하고서도 중국 의서일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이 시대 향약론 혹은 나아가 한국한의학의 본래 면모조차 굴절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컨대 김[2]의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결과는 이 책을 송대의 것으로 인정하므로써 이후 지속된 유사 주제 연구에서 『향약구급방』을 비롯한 고려 의서 대부분이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 독자적 경험방법을 응용한 몇 가지 예를 제외하면 그 술법이 당송唐宋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다"[3]고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 역시 "향약구급방, 삼화자향약방, 향약집성방 등 비예백요방을 주요 의거서로 삼은 대부분의 향약류 의서들이 송의 의서를 거의 전재하다시피 중용했다"[4]는 엉뚱한 결론으로 흘러가고 말았던 것이다.

필자 역시 『의방유취』의 서지학적 고찰 및 편제 분석 등의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서까지 앞서의 이러한 선행연구로부터의 인상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와 같이 그간 『비예백요방』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했으며, 앞서 인용한 최[5] 등의 치과 부분에 한정한 『향약구급방』연구와 신[6] 의 『향약구급방』에 대한 복원 및 의사학적 고찰에서 참고의서로 이용된 것이 전부인 탓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나마 이들의 연구는 상호유사성을 감지하여 중요한 단서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잘못된 결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오류를 낳고 말았다.

다행히도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통한의 처방의 분석과정 중 우리는 『의방유취』에서만 병증 각문의 여러 곳에 걸쳐 중요 인용서로 채

2)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55
3) 김두종. 앞의 책.
4) 최진환, 이영택 「우리나라 최고의서인 향약구급방의 인용문헌에 관한 고찰」종합의학 9/4 1964
5) 최진환, 이영택. 앞의 논문.
6)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록된 이 의서의 처방이 다름 아닌 삼국시기 이래 고려까지 전승된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경험이 누적된 전통한의처방을 수록하고 있는 순수 고려 의서일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의방유취』내 인용문 전문을 채록하여 복원하는 한편 원문처방의 대조 복원과정에서 유취 편찬자의 주석 가운데 보이는 인명과 서명 등을 단서로 고려사 및 족보, 관련 기록 등을 추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저술연대와 전본 계통을 추정하였기에 이에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1. 고증의 단서

『비예백요방備預百要方』에 대한 의문은 앞서 서문에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의방유취·인용제서』로부터 출발한다. 인용제서 목록에는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으로부터 시작하여 '소학의경小學醫經'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과 한국의 전통 한의방서가 고금의 시대선후에 따라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성종초간본 의방유취의 내용에는 이 중 상당수의 의서가 직접 채록되어 있지 않으며 '세대선후世代先後'라는 수록원칙도 일부에서 모호한 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7] 특히 인용서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당시 최고 수준의 방대한 의학서를 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의서는 '어의촬요御醫撮要' 단 1종에 불과하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의문점이자 못내 아쉬운 점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건국 초기의 자주적 기풍이 풍미하였으며 특히 여말선초麗末鮮初에 이르는 향약론이 『향약집성방』에서 꽃을 피운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시대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간단히 해소되고 만다. 『향약집성방』의 간행(1433년)과 『의방유취』편찬 시작(1443년) 시점[8]은 불과 10년 간의 시차 밖에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고려, 조선의 향약 의서는 대부분 『향약집성방』에 취합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두 가지 종합 의서의 특색을 대비하면 『향약집성방』은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이라는 람본藍本을 모태로 비교적 용이하게 편찬되었고 자국 의서를 가능한 수용한 상태에서 병증별 처방 채록의 간편성에 치중한 반면, 의방유취는 당시로선 최신 의학인 금원기의 의학설을 도입하여 논증과 처방의 이론적 결구結構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험 위주의 자국의학 전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7) 이에 관한 논의는 졸고 「의방유취 총론의 체제와 인용방식 분석」'98 전국한의학학술발표대회

8) 세종실록 1445년의 편찬완료 기사에서 3년에 걸쳐 완성되었다는 기록을 역산하여 추정.

의문에 대한 고증의 시작은『의방유취·인용제서』에 수록된 153종의 인용서 중 '어의촬요'에 이어 150번째로 등재된 '비예백요방'이 중국측 기록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의서이면서 순서상 뒷 쪽에 몰려 연접해서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東醫寶鑑·歷代醫方』이나 후대의 한국본 의서의 인용서목에서 대개 이와 같이 끝머리에 수록하고 있는 특징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 의방유취 인용제서
黃帝內經素問 靈樞 運氣 遺編 明堂灸經 針經 .....
金櫃鉤玄 御醫撮要 備預百要方 簡奇方 醫經小學 小學醫經

하지만 인용제서에서는 이들 이후로도 명대 유순劉純의 '의경소학醫經小學'과 역시 편찬미상인 '소학의경小學醫經'이 뒤따라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재순서상의 상근성 만으로는 개연성을 갖춘 논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의문으로부터 시작한 편제상의 추론과 인용처방의 단순성 등 수록내용으로부터 감지되는 심정적 추정은 논리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늘 유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처방의 대조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수확되었다. 다름 아닌 처방에 달린 주석상의 몇 글자가 중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의방유취/ 권24/ 중풍문12/ 備豫百要方의 諸風論에 나타난 '尙書金弁經驗'이라는 여섯 글자이다.

1) 단서의 추적

증거자료 1:

四肢攣縮方: 木果實搗碎, 以蒸甑之, 幷所蒸水, 置入沐, 勿令泄氣. 尙書金弁經驗.

물론 상서尙書라는 관직은 당송시기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중국이나 고려 모두 사용했던 직명이다. 그러나 '김변金弁'이라는 실명을 고려사에서 검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즉 고려사에 기록된 사실만 해도 그는 김인존金仁存, 김영석金永錫으로 이어지는 고려말 손꼽히는 명문세족인 강릉 김씨 가문의 인물이었으며, 특히 이름이 전하는 가장 오래 된 고려 의서인『濟衆立效方』의 저자 김영석의 증손이라는 사실이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심증적인 확신을 갖기에는 충분했으며, 관련 인물로서 김변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막상 김변에 대한 기록은 그의 화려한 정치이력에 비해 풍부한 편이 못되어 치밀하고 상세한 연계고리를 확보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고려사·세가世家』와 「열전列傳」에 등장하는 그에 관한 2가지 기사는 다음과 같다.

관련자료 1-1:

* 고려사·세가/ 권22/ 고종1

戊子一十五年春正月.....癸未, 以判將作監事金弁, 爲東北面兵馬使,.....

* 고려사·열전/ 권9/ 김인존

.....永錫曾孫弁, 一名琪, 幼力學, 登第, 高宗朝, 歷正言·御史, 出按忠淸, 日酣飮廢事, 又橫斂賂權貴, 人皆切齒, 仕至判少府監事,.....

고려사에 등장하는 그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로 목표하는 인물을 찾았다는 기쁨이외에는 상서 직책이나 의약관련 사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지 못했다. 그래도 유일한 정사正史의 믿을 만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의 국역본[9]을 참조하여 위의 기사를 풀어보기로 하자.

관련자료 1-2

* 고종/ 무자15년(1228)

무자 15년(1228) 봄 정월 초하루 병자일에 지진이 있었다.
계미일에 판 장작감사判將作監事 김변金弁을 동북면 병마사로, 대장군 태집성太集成을 서북면병마사로 각가 임명하였다.....5월 신축일에 북계 병마사로부터 국경 지대에 적이 침입하였고 황충이 발생하여 곡식을 해친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왕이 내시를 파견하여 서울과 지방 신사에서 빌게 하는 한편 선경전에서 14일 동안 반야 도량을 베풀었다.

* 김인존

김인존은 학문을 좋아하여 늙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한때 조서나 교시의 대부분이 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두 번이나 과거를 주관하여 명사될 만한 인재를 많이 선출하였다. 일찍이 최선崔瑄, 이재李載, 이덕우李德羽, 박승중朴昇中 등과 더불어 음양, 지리에 관한 서적들을 산삭 편수하여 왕에게 올리니 왕이 『해동비록海東秘

9) 동아대학교편. 『역주고려사』와 [(주)누리미디어] CD-ROM 고려사 국역문.

錄』이라는 책 이름을 주었다. 또 박승중과 함께 『시정책요時政策要』를 편찬하였으며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주석을 냈다. 아들 김영석金永錫, 김영윤金永胤, 김영관金永寬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평장사에 이르렀다.

김영석의 증손은 김변金弁이며 일명은 김기金琪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였고 고종 때에는 정언, 어사 벼슬을 지내고 안무사로 충청도에 부임하였으나 매일 술만 마시고 일을 보지 않았으며 또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아서 권력있는 고관에게 뇌물 주는 밑천으로 삼으니 사람마다 모두 이를 갈며 그를 원망하였다. 김변은 벼슬이 판 소부감사判少府監事에 이르렀다.....

위에서 제시한 정사의 기록만으로는 동일한 인명만을 확인했을 뿐 '상서尙書'라는 관직명조차 일치하지 않았다. 국역부분에서 동북면병마사로 파견된 그에 임무가 구휼救恤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또 김인존이 『제중입효방』뿐 만 아니라 『해동비록海東秘錄』을 저술하는 등 음양지리를 비롯한 잡학이나 기술학에 밝은 인물이며 김변이 그러한 가문의 분위기 아래서 비교적 의약에 소양을 갖추기에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정도밖에 얻을 것이 없었다. 따라서 2차로 그에 관한 가계와 족보 및 관련 사료를 폭 넓게 조사한 결과 심증을 굳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제시되었다.

관련자료 2:

1) 江陵金氏世譜(一)

初諱琪, 又諱璜. 金紫光祿大夫, 判小府監事, 上將軍, 兼判尙書戶部事. 公自幼好學, 手不釋卷, 與李白雲, 陳澕等, 爲忘年交, 論文講學. 熙宗朝, 擢文科, 直翰林院, 歷中書舍人, 知制誥. 壬申[10], 以右諫議, 進階奉翊, 爲忠淸道觀察使. 時事傾危, 而亦無以自慰, 往往與賓僚宴遊, 而權貴以酣飮, 廢事効之. 紹定[11]己丑, 以戶部尙書, 移御史大夫, 癸巳以前, 判密直, 拜判少府事. 育一男.

2) 江陵金氏家乘(一)

初諱琪. 擢第, 歷正言, 御史官, 判少府監事.

10) 壬申은 甲申의 오기로 보임. 왜냐하면 康宗1年(壬申, 1212년, 24세)에 '以右諫議(정4) 進階奉翊 爲忠淸道觀察使'라는 조목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뒤의 연보 참조.

11) 紹定은 南宋 理宗의 연호.

3) 江陵金氏評議公派譜(卷之一) 편찬위원회
初諱琪, 璜. 判將作監判事, 東北面兵馬使. 明宗一十九年己酉生. 文科及第, 高宗朝, 殿中侍御史, 將作監歷任. 高宗十五年, 將作監判事, 東北兵馬使.

4) 江陵金氏翰林公派大同譜(上系) 편찬위원회. 1994. pp. 11-12.
初諱琪, 或作璜. ○熙宗二年丙寅, 文科. 直翰林院. 乙亥, 轉寶文閣直學士兼侍御史. 丙子, 補豊德府使, 歷黃海二州牧. 後轉僉議府門下評理. 癸巳, 以判密直司事, 移拜判少府監事兼尙書戶部. ○公自幼力學, 手不釋卷, 與先友李白雲奎報, 陳梅湖澕(準), 論文講學. 二公稱之, 曰文成公, 夭手筆力, 復見於子, 其獎許如此.

그에 대한 가계도와 강릉김씨 족보 등 2차 관련자료를 통한 기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世系圖

始祖	10	11	12	13	14	15	16
.....	仁存	永錫	閎	革升	弁	守精	雄
周元				(鞏升)			
溟洲郡王	30	31	32	33	34	35	36

1. 년대기와 관직변동
金弁(1189- ?, 初名 琪, 璜)

明宗19年(己酉, 1189년, 1세) 출생
熙宗2年(丙寅, 1206년, 18세) 文科及第
直翰林院(정9)
歷 正言(종8품) 御史官
高宗朝 殿中侍御史(정6) 역임
高宗2年(乙亥, 1215년, 27세) 寶文閣直學士 兼侍御史(어사대-종5)
高宗3年(丙子, 1216년, 28세) 豊德府使 歷黃海二州牧
中書舍人(종4) 知制誥 등 역임
高宗3年(甲申, 1224년, 38세) 以右諫議(정4) 進階奉翊 爲忠淸道觀察使(추정)
後轉 僉議府門下評理

將作監(정4)
判將作監事(종3)

高宗15年(戊子, 1228년, 40세) 春正月癸未 以判將作監事(종3) 爲東北面兵馬使(*高麗史)

高宗16年(己丑, 1229년, 41세) 以戶部尙書(정3), 移 御史大夫(정3)

高宗20年(癸巳, 1234년, 45세) 以判密直司事 移拜判少府監事(종3) 兼尙書戶部(정1)
金紫光祿大夫(고려 정2품계) 判小府監事 上將軍(정3)
兼判尙書戶部事(종1)

2. 생애와 성품, 교우관계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즐겨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이규보(李白雲), 진화陳澕 등과 함께 나이에 상관없이 교제하며 문장을 논하고 학문을 강구하였다. 시급한 일로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도 아무 하는 일없이 느긋하게 생각하여 종종 손님이나 동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놀기만 하였다. 권세가나 귀족에게 술 마시고 아부하느라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강릉김씨세보)[12]

공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열심히 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나이 많은 白雲 이규보[13], 梅湖 진화陳澕[14] 등과 함께 벗으로 교제하며 문장을 논하고 학문을 강구하였다. 두 사람이 이르기를 文成公(공의 고조부 仁存으로 睿宗조에 배향)의 하늘이 내리신 문장력(夭手筆力?)이 그대에게 다시 나타났으니 칭찬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다.(한림공파대동보)[15]

여하튼 이상의 조사결과로 그가 41세가 되는 고려 고종16년(己丑, 1229년) 이전에 이미 정3품에 해당하는 호부상서戶部尙書직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었음이 명백히

12) 公自幼好學 手不釋卷 與李白雲 陳澕 等爲忘年交 論文講學 時事傾危 而亦無以自慰 往往與賓僚宴遊 而權貴以酣飮 廢事効之 育一男 --- 강릉김씨세보

13) 李奎報(李白雲) 의종22년1168-고종28년1241
1215년 경 유승단 이인로 진화 등과 文風의 성황을 구가. 고려의 대문장가로 최종준의 부탁으로 新集御醫撮要方의 서문을 지었으며, 간행 사실을 알려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이 그의 문집 東國李相國集에 실려 있다.

14) 진화陳澕 1180년경 고려 신종, 희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驪陽(홍성), 호는 梅湖 문집으로 매호집이 있다.

15) ○公自幼力學手不釋卷 與先友李白雲奎報陳梅湖澕(準)論文講學
二公稱之曰 文成公 夭手筆力 復見於子 其奬許如此 --- 한림공파대동보

확인되었다. 또한 백운白雲 이규보, 매호梅湖 진화陳澕 등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교유한 재사才士로 기록됨으로써 고려의서의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확보되었다.

아울러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과 서거정의 『동문선』에 그에 관한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다.[16]

관련자료 3: 김변 양 중서사인 불윤 비답金弁讓中書舍人不允批答

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17]

2) 徐居正 東文選[18]

【원문】

云云, 內史之司, 舍人爲重, 故得五花判事之美, 至有一佛出世之稱, 苟非其人, 曷稱斯任, 汝文章博贍, 志節軒昂, 凡歷位於淸華, 輒揚聲於顯赫, 臺綱所振, 朝列皆稱, 糾彈蔑私, 不寒而慄, 議論無滯, 其決如流, 況乃者以一介之身, 掉三寸之舌, 往諭强虜, 如弄孩兒, 非汝之膽大於身者, 孰捐性命於鴻毛, 自試死生於虎吻哉, 功其卓爾, 賞未副焉, 如或循次而官之, 何有與人而異者, 故擢從烏府之下列, 而超授鸞臺之峻聯, 猶有歉心, 又何多讓云云.

【역문】

.....내사內史의 소임은 사인舍人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화판사[19]란 미명을 얻게 되고, 하나의 부처가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니, 진실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찌 그 소임에 맞겠는가! 너는 문장이 훌륭하고 지조와 절개가 우뚝하여, 여러 요직을 거칠 때마다 번번이 명성을 날리고, 사헌부의 기강이 떨치게 되매 조정 반열들이 모두 칭찬하였으며, 그 사정없는 규탄은 춥지 않아도 소름이 오싹할 정도요, 거침없는 의논으로 결단하기를 물 흐르듯 했다. 더구나 이번에 혼자 몸으로 오랑캐의

16) 다소 번잡한 감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 고려의 문신학자로서가 아닌 유의 또는 의약관련 인물로서의 추후 연구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국역 권4)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2. pp. 226-227
원문은 李相國集 第三十三 敎書, 批答, 詔書 pp. 85-86.

18) 徐居正 東文選 제30권 비답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8
국역 p.301 원문 pp.579-580.

19) 오화판사(五花判事)란 당송시기 중서성의 각 관원마다 軍國大事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므로 반드시 문서마다 각자 의견과 서명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美稱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나라로 들어가 세 치 혀를 번득여, 그들을 어린애 다루듯 타일렀으니, 너와 같이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과연 목숨을 홍모鴻毛처럼 내던져 스스로 범 아가리에서 사생을 시험하였겠는가? 이렇듯 공이 큰데도 상을 맞게 주지 못했으니, 만일 차례대로 벼슬을 준다면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므로 오부烏府(御史臺)의 낮은 자리에서 발탁하여 난대蘭臺(門下省)의 높은 반열에 올리노라. 내 마음에는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데 왜 자꾸 사양하는 것인가.....

2) 또 하나의 단서

증거자료 2: 의방유취/ 권70/ 안문/ 비예백요방

眼風赤澁痒方:

楓葉不以多少

右以水爛煎, 去滓, 停冷洗之, 不過兩三度差. 出愼尙書方.

복원과 함께 진행된 비예백요방의 고증과정에서 '상서김변尙書金弁'에 이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되었다. 이 역시 안문의 세안약洗眼藥 처방의 말미에 기재된 주석의 출전 표기인데, '출신상서방出愼尙書方'이라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서직을 거친 신愼씨 성을 가진 인물의 경험방서로 보인다. 이에 고려사를 중심으로 이 인물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하였다.

고려사 전문의 내용중 신상서愼尙書로 지칭될 만한 인물은 단 한 사람으로 '신안지愼安之'가 검색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관련자료 4:

* 고려사/ 예종/ 기축4년(1109)

무인일에 김상우金商祐, 한교여, 신안지愼安之 등이 송나라로부터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왕이 선정전에서 조서를 받았다.

* 고려사/ 권10/ 유재〔호종단胡宗旦, 신안지愼安之의 전기가 포함됨〕

신안지愼安之의 자는 원로元老니 그도 송나라 개봉부開封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신수(脩)가 문종 때에 상선을 따라왔는데 학식이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수 사도 좌복야 참지정사까지 승진된 후 치사하였으며 시호는 공헌恭獻이라고 하였다. 신안지는 예종과 인종 두 왕을 섬겼다. 수주水州 원으로 있을 때

에 정사를 청백하고 엄숙하게 하였으므로 그 고을의 아전들은 그를 어렵게 여기고 백성들은 그를 사모하였다. 벼슬이 여러 번 승진되어 병부상서 삼사사 판 합문사(兵部尙書三司使判閤門事)로 있다가 죽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관대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 청렴하고 공평하게 하였다. 특히 의술이 유명하고 한어漢語를 잘 알았으므로 남조南朝(송나라)와 북조北朝(요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의 대부분이 그의 손에서 작성되었다.[20]

관련자료 5:

仁宗十一年 紹興癸丑 十一月甲子 遣愼和之 如金賀正

謹按公初諱安之 至是改和之 公以文宗戊申出來 至是歷七朝六十四年 自始見睿宗己丑至是爲二十五年 丁氏諸姓譜 曰和之卽安之之兄 未詳其是非(居昌愼氏上世譜)

관련자료 5의 신화지 기록이 신안지와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논외로 하고 거창신씨 집안의 시조로 되어 있는 신수의 도래渡來로부터 연대가 드러난 기록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문종22년(1068) 이전 개봉부의 진사 신수 아들을 데리고 고려로 옮겨옴.
고려 문종29년(1075) 신수 시어사侍御史가 됨
고려 숙종6년(1101) 신수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으나 치사致仕하고 이 해에 졸卒.
고려 예종4년(1109) 신안지 병부상서 김상우를 따라 송에서 조서를 가지고 돌아옴.
고려 인종조? 신안지 병부상서 삼사사 판 합문사(兵部尙書三司使判閤門事)
고려 인종11년(1133) 신안지(화지) 금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파견.

기록상 신안지는 신상서방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다만 1101년에 수사도 좌복야守司徒 左僕射(정2품직) 참지정사參知政事(종2품직)에 오른 그의 아비 신수愼脩도 정3품직인 상서尙書직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술에 정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주 활동시기는 1068년 문종22년 이전 송의 개봉부開封府로부터 고려에 도래하여 문종/숙종-예종/인종에 걸쳐 대략 1100-1130년경까지 50-60년간이다. 따라서 이들이 활약했던 시기만을 고려한다면 신상서방은 김영석의 제중입효방에 앞서는 것으로 송의학의 장점이 가미된 의방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변의 활동시기로 추정한 비예백요방의 하한연대를 감안할 때 근 100여년의 시차가 있다. 하지

20) 이상 CD-ROM 고려사 및 신구문화사편 한국인명사전 참조.

만 거창 신씨의 시조인 신수의 후대 3-4세가 실전되어 족보상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욱 하대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상서방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상 더 이상 탐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하튼 신수로부터 병부상서兵部尙書직을 거친 것이 확실한 신안지의 의약경험醫藥經驗이 담긴 이 집안의 가전방서家傳方書를 비예백요방에서 채록하여 인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상의 조사에 따르면 의방유취 중풍문의 비예백요방 인문에 나타나는 '상서김변경험尙書金弁經驗'은 고려 고종『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을 지은 김영석金永錫의 증손인 호부상서戶部尙書 김변金弁의 의약경험을 수록한 것이라 볼 수 있다.[21] 또 안문의 비예백요방 처방의 출전에 표기된『신상서방愼尙書方』역시 고려 인종조에 병부상서직을 지낸 신안지의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경험방서로 보인다. 따라서 비예백요방이 고려인의 손에 의해 편집된 의서일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편찬시기 또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편찬사실이나 저자 등에 관련 기록이 부재하므로써 의외의 가능성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선 김변의 활동시기를 중심으로 편찬시기를 추정하면서 여타 고려 의서와의 상관성을 탐색해 보고 보충자료가 추가로 확보되기를 기대하기로 한다.

2. 저작연대와 전본

1) 저작연대 추정

이 책의 저작연대에 관해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끼 사카에三木榮와 김두종이 의방유취 인용의서의 시대구분을 언급하면서 송의 의서로 추정하였다.[22] 이후 최[23]는 다기의 의적고를 비롯한 역대 여러 학자의 관련 저술에 언급이 없다고 밝히면서 송 시대의 의서라는 견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상당기간 유일본 의방유취를 개인장서로 소장하면서 일본고증학파의 문호를 열었던 단파가문의 저작 중에 이에 대한 견해가 피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재검

21) 첨언할 것은 김변의 가계는 김영석의 제중입효방 뿐 만 아니라 조선 후기 강릉지방을 중심으로 醫藥稧를 결성할 정도로 의약 전통이 강한 집안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李揆大. 「조선후기 藥局稧의 一考察」 又仁 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pp.263-290. 참조.

22) 朝鮮醫學史及疾病史, 한국의학사의 의방유취 관련 부분 참조.

23) 최진환. 앞의 논문.

토해 보았다. 위의 단파원윤丹波元胤이 지은 『중국의적고中國醫籍考』에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동생인 단파원견丹波元堅의 『잡병광요雜病廣要』권말의 인용서목引用書目을 보면 이 책이 명 시기의 의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備豫百要方 (明・闕名)'

또 이 기록은 중국의 張燦玾이 그의 저작 중 관련 부분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한 것이 유일한 언급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비예백요방의 연대 추정에 있어서는 삼목, 김과 이들의 견해를 따른 최의 송시대설, 그리고 단파원견과 이를 인용한 장의 명시대설로 대비될 뿐이다. 두 가지 모두 이 책이 중국의서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견해이기에 크게 참고할 바는 없으나 대략 전자의 경우, 처방이나 인용문의 경향성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인용제서상의 시대순 배열에 따른 범례의 수록원칙을 의식한 판단으로 보인다. 즉, 『의방유취・인용제서』에서 이 책이 명 유순劉純의 옥기미의玉機微義, 의경소학醫經小學 그리고 고려의 어의촬요御醫撮要에 이어 수록되었고 역대사지서목류歷代史志書目類에 기록되지 않은 미지의 서적으로 의방유취 편찬 당시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견해를 의식하지 않아도 앞서 정리한 김변의 연대기 및 족보자료, 교유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의서의 편찬시기는 김변이 현직인 호부상서직에 재임했던 고려 고종16년(己丑, 1229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책의 저술시기가 이 추정시기에서 크게 동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첫째, 김변에 대한 고려사, 족보자료 등의 기록에는 상서尙書직이 명시되지 않고 판장작감사, 소부감사 등의 벼슬이 주로 거명되고 있으며, 실제 그의 나이 45세가 되던 고려 고종20년(癸巳, 1233년) 이후 정2품계인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및 상장군上將軍(정3품) 겸판상서호부사兼判尙書戶部事(종1품) 등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실이 전하기 때문이다.

둘째, 고려 중엽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향약구급방』이 『비예백요방』을 모태로 거의 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존 의사학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즉, 『비예백요방』의 하한연대가 『향약구급방』의 편찬 이후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적어도 대장도감의 설치시기인 고려 고종19년(1232)에서 고종 38년(1251) 이전에 나온 것임이 분명해 진다.

셋째, 당연히 두 가지 사실을 교차시키면 『비예백요방』의 저작시기(혹은 간행시기)

는 1229년에서 늦어도 1251년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의 결론은 김변의 생애 및 활동시기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치를 좁혀볼 수 있다. 즉, 그의 증조부가 되는 김영석(1079-1166)의 생존연대가 확실하므로 이로부터 추정되는 증손인 김상서의 활동시기가 이규보, 진화 등과의 교류시기 등을 감안할 때 대략 1230년 전후로 보이고 이 시기는『어의촬요』이후『향약구급방』간행 이전으로 따져볼 때 얼추 부합된다.『향약구급방』의 초간시기가 정확치 않으므로 간경도감의 후반기로 미룬다면 1230-1240년경 무렵이『비예백요방』의 저술시기로 추정된다.[24]

2) 전본과 계통성

『의방유취』인용서로 편입되었을 뿐 원본이 망실되어 전하지 않는『비예백요방』의 전본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현재『의방유취』안에 남아있는 유편遺篇의 일부를 통해 유취 편찬 당시까지 이 책의 유전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기로 한다.

촛점이 되는 것은 의방유취/ 권76/ 구설문의 천금방편에 취합된 비예백요방의 대조문 끝에 나타나는 주석이다.

"【備豫百要方】舌忽然腫如猪胞狀, 滿口不理, 須臾卽死方: 煤炱和鹽少許, 細研, 塗上下. 煤炱, 一云釜黑. 一本和醋."

위『의방유취·구설문』의 처방은『향약구급방』에서 목설木舌의 치료처방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향약집성방』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성혜방' 처방을 인용하고 있으며,『의방유취』에서는 천금방조에 취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처방은 당송시기 이래 약간씩 유형을 달리하면서도 중국과 한국에서 두루 사용된 치료법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는 비예백요방 대조문의 말미에 있는 편찬자의 교기校記를 통해서 유취 편찬시 적어도 2종 이상의 전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문구는 세종대 편찬 당시 이미 정형화된 출간물이나 정본正本이 부재한 상태에서 아마도 전초轉抄과정에서 약간씩 개변이 된 서로 다른 사본寫本류로 전존傳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저술시기 또한 유취 편찬 당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5]

24) 향약구급방 역시 고려 초간본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 추정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김두종은 고종23년경(1236)으로 추정했으나 명확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고 신영일은 대장도감의 설치시기를 기준으로 1232-1251년 사이만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유취를 편찬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불과 10년 앞서 출간된『향약집성방』에서 비예백요방과 같은 대형방서가 거의 제외된 점[26], 또 비예백요방과 남아있는 부분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는『삼화자향약방』이『향약집성방』에서 다수 채록되고 이에 반해 의방유취에서는 전혀 제외된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27]

따라서 현재까지의 판단으론『향약집성방』에서 전본 상태가 양호하고 시기적으로 가까운 삼화자향약방을 보다 비중있게 인용하였고『의방유취』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원형태라고 보여지는 비예백요방의 전본을 수집하여 인용서로 채록함으로써 향약집성방과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28]

비예백요방과 삼화자향약방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지속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나 일단 시기적으로 선후관계가 인정된다. 또 현재『향약집성방』에 채록된 삼화자향약방이 240방 가량으로 고려의서 중 가장 많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향약제생집성방』편찬 서문에 너무 소략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취에 남아 있는 비예백요방의 유문은 4편의 논설과 1200여 방이 상회하여 양적으로 훨씬 방대한 의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화자향약방은 규모나 시기에 있어서 조선초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전본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저작시기에 있어서도 1230-1240년경 길지 않은 시간간격을 두고 비예백요방-향약구급방이 순차적으로 편찬되었으며, 이후 이를 토대로 삼화자향약방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중기의 고유의학서로부터 조선전기의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같은 거대 종합의학서의 편찬으로 이어지는 우리 의학서의 계통성과 시대별 흐름이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된다.

---

25) 향약구급방의 경우 최자하의 소장본을 중간할 때 이미 遺漏가 있었으며, 신영일의 조사에서 향약집성방내에 중간본에서 빠진 처방 7조가 발견된 바 있다.

26) 향약집성방에서 '百要 3조 인용'. 이와 더불어 동의보감에도 '백요'라고 출전이 기록된 1조의 유문이 보이는데, 이것 역시 비예백요방의 단편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27) 향약집성방에서 '삼화자향약방 238조 인용' 최수한은 38처 143조

28) 앞서 최의 논문에서도 이미 비예백요방이 삼화자향약방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보았다. 또 최수한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삼화자향약방을 고려말기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표 1: 고려의서의 전존상태

서 명	추 정 연 대	저 자	전 본	복 원
濟衆立效方	고려 의종21년 (1170)	金永錫	유편1조/향집	×
藥方(醫方)	?	茶房	佚	×
御醫撮要	고려 고종13년 (1226)	崔宗峻	유편다수/향집12, 유취129, 분문온역이해방 1방	○ 일부 복원
鄕藥古方	?	□	유편/향집4조7방	×
鄕藥救急方	고려 고종 (1236-1251) 조선 태종17년 (1417)	□ 崔自河(중간본)	□ 중간본	× ○ 중간본 복원
鄕藥惠民經驗方	고려 공민왕?	□	유편/향집21조30방	×
診脈圖訣	고려 공민왕원년 (1389)	鄭道傳	佚	×
三和子鄕藥方	고려말	□(三和子)	유편/향집99조238방	×
鄕藥簡易方	고려말	徐贇, 權仲和	유편/향집42조60방	×
鄕藥濟生集成方	조선 태조7년 (1398)	權仲和, 金希善, 趙浚, 金士衡	유편/향집	×
東人經驗方	朝鮮開國 전후		유편/향집10조27방	×
本朝經驗方	朝鮮開國 전후		유편/향집, 창진집, 의림촬요 등	×

결 론

비예백요방은 의방유취 인용제서 중에 주요 인용의서로 채택되어 있고 병증 각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역대사서나 서지목록에 전혀 언급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간 의사학자들에 의해 단순히 당송 혹은 원명시기의 중국의서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저자는 여말선초의 향약류 의서와 향약집성방, 의림촬요, 동의보감 등 한국본 한의서와의 비교 조사 및 의방유취로부터 채집된 비예백요방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이 책이 여말 민족의학 경험이 다분히 농축된 순수 한국본 의서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방유취 풍문 제풍 조의 비예백요방 처방 중 주석에 보이는 '상서김변경험'이라

는 여섯 글자는 김변의 행적과 시기적 고찰에서 고려 중기 제중입효방의 저자인 김영석의 증손이며, 호부상서직을 지낸바 있는 인물임이 분명하므로 고려의학의 자주적 의학경험이 담겨진 의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2. 채록된 비예백요방문 가운데 나타나는 '出愼尙書方'이라는 표현은 거창 신씨 愼安之의 家傳經驗方書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고려 의서임을 확증케 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3. 연대 추정에 있어서 김변의 생애와 활동시기 및 향약구급방의 간행시기 추정 및 간경도감의 설치시기 등을 오버랩하여 추찰한 결과 본 비예백요방은 1230-1240년경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향약집성방에서 3조의 처방만 채록된 반면 의방유취에서는 다량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편입되었으며 동의보감에 인용된 이후에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채집 복원된 비예백요방문을 중심으로 여말선초의 전후 의서 처방을 대조 분석한 결과 비예백요방-향약구급방-삼화자향약방으로 이어지는 전본계통을 인정할 수 있으며, 조선의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편찬에 있어서 주요 채록대상이 된 고려 의서임을 확인하였다. 또 유취 편찬시의 校記 중에 나타난 '一本'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본이 흩어진 상태에서 적어도 2종 이상의 전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사학계의 시각이 향약구급방과 삼화자향약방, 비예백요방의 근친성이 중국적 영향성을 짙게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우리의학의 중국화 경향을 크게 탈피하는 것이다. 즉, 여러 향약류 의서의 기본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던 비예백요방이 중국처방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해서 삼국으로부터 고려에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학 경험이 송두리째 당송의학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말선초에 대두된 향약론이 단순히 중국산 약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하며, 비예백요방을 비롯한 조선 중기 이후 고려 의서의 복원과 분석적 연구를 통해 민족의학 경험이 반영된 자주의학의 기풍과 그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金南一. 「鄕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진단학회:제26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엄, 1998.

2. 金斗鍾.『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探究堂, 1979.
3. 金斗鍾.『韓國醫學文化大年表』. 서울:探究堂, 1963.
4. 金斗鍾.『韓國醫學史』. 서울:探究堂, 1979.
5. 金斗鍾.「醫方類聚 解題」.『黃帝醫學』, 1977: 2/2.
6. 金信根.『韓醫藥書攷』.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7. 金禮蒙 等撰. 東洋醫科大學 編寫.『醫方類聚』. 서울:東洋醫科大學, 1965.
8. 金禮蒙 等撰. 東醫科學院 校閱.『醫方類聚』. 서울:여강 영인, 1994.
9. 金禮蒙 等撰.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醫方類聚』(校點本).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
10. 김례몽·전순의·최윤 등 편찬, 로중례·리용·리사철 등 감수, 북한 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 번역.『의방류취』, 북한: 의학출판사{서울: 여강출판사 영인, 1991.}
11. 김예몽 등. 원본『의방유취』마이크로필름. 東京:宮內廳書陵部圖書寮 所藏, 1998도입.
12. 南京中醫學院.『中醫方劑大辭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13. 盧重禮, 兪孝通, 朴允德 等.『鄕藥集成方』, 서울:漢城圖書, 1942.
14. 丹波元胤.『中國醫籍考』.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15. 丹波元堅.『雜病廣要』.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3.
16. 東亞大學校 古典硏究室 譯註編輯.『譯註高麗史』. 서울:太學社, 1987.
17. 모리스 꾸랑, 李姬載 역.『韓國書誌』서울:一潮閣, 1994.
18. 三木榮.『朝鮮醫事年表』. 京都: 思文閣, 1985.
19. 三木榮.『朝鮮醫書誌』. 增補版. 大阪:學術圖書刊行會, 1973.
20. 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三木榮宅, 1963.
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서울시스템(주), 1995.
22. 蕭源 等輯.『永樂大全醫藥集』.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6.
23. 孫思邈.『備急千金要方』. 文淵閣四庫全書735, 1-36, 여강, 1988.
24. 孫思邈.『孫眞人備急千金要方』. 正統道藏26, 文物出版社 영인.
25. 孫思邈. 影宋本『備急千金要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영인, 1982.
26. 孫弘烈.『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修書院, 1988. pp. 100-103.
27. 신동원.「동의보감·역대의방 과연 인용문헌인가」한국과학사학회지, 1997:
28. 申榮日.『鄕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4.
29. 沈喁俊.『韓國逸書硏究』. 서울:일지사, 1985.
30. 安相佑 외.「醫方類聚 總論의 體制와 引用方式 分析」. 전국한의학학술발표대회.

1998.
31. 嚴世芸.『中國醫籍通考』.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32. 열린데이터베이스연구원.『CD-ROM 고려사』. 서울:(주)누리미디어, 1998.
33. 李經緯, 孫學威.『四庫全書總目提要 醫家類及續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34. 李揆大.「조선후기 藥局稧의 一考察」又仁 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
35. 李奎報.『이규보시문선』해설. 서울:솔, 1997.
36. 李林.「北宋官刻彫板醫書淺談」. 中華醫史雜誌, 1997, 27(3).
37. 陳師文 等 勅撰.『太平惠民和劑局方』. 文淵閣四庫全書(741권), 서울:驪江, 1988.
38. 崔秀漢.『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39. 최진환, 이영택「우리나라 최고의서인 향약구급방의 인용문헌에 관한 고찰」. 종합의학, 1964:9(4)
40. 최환수.「의방유취 인용서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3/1, 1997.
41. 馮漢鏞.『古方書輯佚』.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
42. 馮漢鏞.『唐宋文獻散見醫方證治集』.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
43. 許浚.『東醫寶鑑』. 서울:대성문화사 영인, 1981.

족보자료

1) 江陵金氏世譜(一)
2) 江陵金氏家乘(一)
3) 江陵金氏評議公派譜(卷之一) 편찬위원회
4) 江陵金氏翰林公派大同譜 편찬위원회. 1994.